

광주FC, 상하이 선화 꺾고 16강 경쟁 우위 점할까

오늘 5차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5차전 3승 1패... 승리 시 토너먼트행 유력 '득점 선두' 아시아 공격 활약 주목 이정호 "선수들과 완벽히 준비했다"



창단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서 순항하고 있는 광주FC가 상하이 선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승리를 노린다. 광주 선수단은 상위권에서 반환점을 돈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쟁겨 16강 진출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각오다.

광주FC는 2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5차전을 치른다.

아시아 무대에서 개막 3연승을 질주했던 광주FC는 비셀 고베에게 일격을 당하며 3승 1패(승점 9)를 기록하고 있다. 동아시아 2위에 오르며 16강 진출에도 청신호를 전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네 경기 남아 있는 만큼 안심하기엔 이르다. 16강 마지노선인 8위에 위치하고 있는 가와사키 프론타레(2승 2패·승점 6)와도 승점 3점 차에 그치는 만큼 승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번 상대인 상하이 선화는 올해 중국 슈퍼 리그(CSL)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귀화 선수인 페이난뎬을 비롯해 쉬하오양과 왕하이젠, 주전체, 양쑤샹, 장성룡 등 중국 국가대표팀 자원이 즐비한 강



광주FC가 2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5차전을 치른다. 이정호(왼쪽) 광주FC 감독이 경기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각오를 밝히고 있다.

팀이다. 특히 상하이 선화는 30경기에서 20실점으로 평균 0.67골을 허용하는 잔물 수비로 CSL 최소 실점을 기록했고 3위 팀인 청두 룽청과는 승점 18점 차로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했다. 상하이 선화의 탄탄한 수비를 공략할 키플레이어로는 자시르 아사니가 떠오른다. 알바니아 국가대표팀 소집으로 직전

K리그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아사니는 ACLE 네 경기에서 여섯 골을 터트리며 득점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체력을 충전한 아사니가 이희균, 하승운, 신장무, 김한길 등 속도를 갖춘 자원들과 함께 측면을 흔든다면 중앙에서 공격에 나설 이근희와 허을 등과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FC의 최근 경기력이 최고조에 올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광주FC는 직전 K리그 경기에서 전북 현대모터스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면서도 시종일관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등 우세한 경기력으로 만원 관중을 들뜨이게 만들었다. ACLE에 한해 홈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컨디션도 선수

들의 플레이에 힘을 보탠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경기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졌고, 광주FC가 구사하는 정교한 패스 움직임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호 광주FC 감독은 상하이 선화와 맞대결을 하루 앞둔 26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잘 준비했다. 강팀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의 계획대로 경기를 끌고 갈지 미팅을 통해 선수들과 잘 이야기했다"며 "운동장도 잘 준비했다. 플레이에 큰 지장이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 "비셀 고베와 경기가 끝나고 많이 억울했다. 한번 더 상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리그 스테이지를 통과해서 비셀 고베와 한 번 더 붙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상하이 선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분석하고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이 짚은 상하이 선화전의 키포인트는 공수 밸런스다. 상하이 선화가 CSL에서 최다 득점 2위, 최소 실점 1위로 공수 양면에서 고른 활약을 선보인 만큼 까다로운 상대가 될 전망이다.

이 감독은 "상하이 선화는 직선적인 움직임이 많고 힘이 있고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빌드업을 통해 상대 골대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준비를 마쳤다"며 "순위보다는 16강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서 1승 1무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소통과 혁신으로 선수 위한 협회 만들 것"

류재선 광주시새마을회장 제44대 대한씨름협회장 출마

"소통과 혁신으로 선수를 위한 협회, 협회를 경영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류재선(사진) 광주시새마을회장이 제44대 대한씨름협회장 출마를 선언했다.

류 회장은 26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 5층 대강당에서 대한씨름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류 회장은 "씨름협회가 발전해야 씨름인의 복지와 처우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전통 문화와 현대 스포츠가 결합된 가치 있는 씨름 종목 흥흥을 위해 전문적인 경영과 회장의 역량을 집중해 선수, 지도자 등 씨름인들이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류 회장은 씨름협회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첫째, 오랜 경영 전문가로 대한씨름협회 변화와 혁신 주도. 둘째, 씨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동기부여 방안 마련. 셋째, 씨름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 씨름협회와 소통 강화. 넷째, 씨름인위에 군림하지 않고 씨름인과 씨름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출신인 류 회장은 전남씨름연합회 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장, 한국대하씨름연맹 부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대한씨름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시새마을회장을 맡고 있다.

최동환 기자

무안초 女핸드볼,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대회 2연패

무안초 여자핸드볼팀이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핸드볼대회 2연패 쾌거를 거뒀다.

무안초는 지난 25일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핸드볼대회 여자초등부 결승에서 금천초를 14-11로 꺾고 우승,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여초부 11개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무안초는 A조 예선리그에서 가능초(15-10 승)와 황지초(15-5 승), 천안성정초(23-12 승)를 연파, 3승을 거두며 조 1위로 4강에 직행했다.

4강전서 대구사수초를 24-17로 물리친 무안초는 결승에서 금천초를 만나 5골씩을 기록한 오주희, 이설과 10개의 세이브(방어율 47.6%)를 기록한 골키퍼서민희의 활약으로 3점 차 승리를 거두며 우승했다. 이로써 무안초는 전국소년체육대회(5월)와 태백산기대회(7월)에서 준우승에 그쳤지만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기분 좋은 한 해를 마무리지었다. 팀 우승을 이끈 서민희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박해선 감독과 김하나 코치는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6일 전남체육회관에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활약한 전남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전남도 제9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

역대 원정 최다 금·최고 득점 "좋은 여건 훈련 지원책 보완"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활약한 전남선수단의 해단식을 26일 전남체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10월 경남 일원에서 열린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남선수단은 31개 전종목에 700명(선수 435명·임원 265명)이 출전, 금메달 50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5개로, 역대 원정 최다 금메달 획득과 최고 득점(10만5663점)을 달성해 종합 9위를 차지했다.

해단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윤명희 경

제관광문화위원장,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참가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전남선수단의 열띤 경기 장면을 모은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참가성적 보고, 선수단기 반환, 시상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전남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이광일 부의장과, 윤명희·나광국 위원장 등이, 공로패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해 선수를 지도하고 격려한 경기단체 임원과 지도자 등 22명이 받았다.

다년간 우승팀으로는 3연패를 달성한 전남장애인골볼협회가, 종합 1~3위를 거둔 종목에 수여하는 입상단체상은 1위 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과 전남장애인카누

연맹, 2위 전남장애인론볼연맹이 수상했다.

우수선수상은 다관왕 15명을 대표해 황상준(육상), 박솔기(사이클), 박영순(육상), 권봉춘(축구)이 수상했다. 우수지도자상은 종목 점수 점수를 상위 10종목 지도자를 대표해 강병수 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 감독 등 6명이 수상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파리 패럴림픽 영광에 이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또 한번 한계를 뛰어넘는 끝없는 투지와 열정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이 자랑스롭다"며 "더 나은 여건에서 훈련하도록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기업 연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